지상발명학교

◉ 第19回 ◉

아이디어창출및 발명의발상기법

발명의 10대 기법 (1)

더하기(+)도 발명이다

수학에서는 「1+1=2」 또는 「1+2=3」 등 답은 하나 뿐이고, 또 정확하다.

그러나 발명에서는 다르다. 「1+1」의 답이 1백일 수도 있고, 1천일 수도 있다.

발명의 기법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더하기」이다. 글자 그대로 더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물건+물건」과 「방법+방법」이 그 전부이다. 그것도 새로운 물건과 방법이 아닌 이미 있는 물건과 방법들을 서로 더하면 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다.

따라서 그것이 무슨 발명이냐고 비웃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

이 글을 읽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주위를 둘러보라.

「연필+지우개=지우개 달린 연필」이 미국의 이름없는 가난한 화가를 세계적인 발명인으로 변신시켜 놓았다.

전화기의 수화기와 송화기도 옛날에는 따로따로였다. 그러나 지금은 더해져 하나가 되어 매우 편리하다.

이밖에도 냉동 겸용 냉장고, 보온 겸용 밥솥, 시계 겸용 라디오, 장식 겸용 전등, 목걸이 겸용 시계, 「저고리+치마=원피스」, 망치 겸용 장도리, 만년필 겸용 라디오, 책상 겸용 책상, 필터 달린 담배, …등 온통 더하기 발명 투성이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쳐 버린 것들을 누군가가 발견하여 발명인이 되고, 또 그것이 상품화되어 큰 돈까지 벌고 있는 것이다.

두 가지 이상의 물건을 더하여 새로운 기능의 보다 편리하고 유익한 물건을 만들어 보라. 방법도 마찬가지. 그것이 곧 발명이다.

한국발명학회 신석균 회장은 「머리핀+라디오=머리핀 라디오」의 발명으로 국제발명전에서 준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머리핀도 라디오도 모두 신회장의 발명이 아니다. 신회장은 다만 이 두 가지를 더했을 뿐이다.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펴보라.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더하기 발명의 대상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더하기 발명의 최근 성공예〉

- ▲ 벨트 리프터
- ▲ 풀리지 않는 나사
- ▲ 벨트 콘베이야 고각도용
- ▲ 양면 기어가 붙은 벨트
- ▲ 래벨조절기가 붙은 캬스타 방진기
- ▲ 집진기가 붙은 환기팬
- ▲ 맨홀 뚜껑 여는 공구
- ▲ 자기노즐
- ▲ 태양광 자동집광 전송장치 등 다수

빼기(－)도 발명이다

세상에는 빼서 좋아지는 것도 있다. 이것이 발명이다. 그래서 발명은 재미있는 것이다.

필자는 1983년 「외길집념의 승리」라는 발명의 기법을 곁들인 발명인 성공사례집을 쓰면서 「발명은 실로 재미있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다. 그저 10여 년간 신문기자로서 익힌 취재와 원고작성에만 열심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뜻을 알았다.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도 해보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믿어버리고 포기해 버린 발명이 더해도 되고, 빼도 된다니(뒤에 재미있는 8가지 방법이 더 있으니)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한 일인가?

우리 나라의 경우 발명인의 수는 적지만 한 사람의 발명인이 최하 10건에서 최고 5백 건의 발명을 1~30년 사이에 한 것을 보면 발명은 기초(방법)만 익히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발명의 대상은 무궁무진함을 알 수 있다.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은 맹장을 떼어내야 더 건강하고, 기업도 필요없는 부서는 없애야 발전한다.

발명도 마찬가지다.

시멘트 부럭은 2~3개의 공간이 있다. 그만큼 빼낸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 경제적이고, 가벼우면서도 수명은 더 길다.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머리빗을 생산하는 서울의 L사는 머리빗 손자루에 공간(구멍)을 늘려 재료를 10%나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물건은 더욱 잘 팔리더란 것이다.

추를 없앤 시계와 설탕을 넣지 않은 무가당 파일쥬스 등도 빼기 발명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밖에도 쥬브 없는 타이어와 연통 없는 난로등 빼기 방법을 이용한 발명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붙어 있던 것을 제거(뺐다)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저항이 생긴다. 사람은, 특히 나이가 들면 보수적이 되고 젊은 사람들도 그리 쉽게 빼어 버리는 것은 동감하려 들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필요하지 않는 것을 아니, 없어도 되는 것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편리하고 경제적이다. 그리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훌륭한 발명이 된다.

일본의 J사는 4칸 회전도어를 1칸을 빼낸 3칸 회전도어로 바꿔 생산하여 큰 돈을 벌었다. 3칸 회전도어는 4칸 회전도어에 비해 제작비도 적게 들지만 편리하기도 하여 J사는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우리 주변에는 빼내도 될 것이 아직도 많다. 우선 주변에 있는 것부터 빼내도 될 것이 없는가 살펴보자. 그게 부품이건 구멍(공간)을 뚫는 것이든 찾아냈다하면 곧 발명을 한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빼는 것은 발명이 아니다. 빼내되 모양이 나빠지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안된다. 항시 그 반대여야 한다.

〈빼기 발명의 최근 성공 예〉

▲ 샤프트레스 스파이랄세척기
▲ 안내 바퀴를 없앤 자동조심 보로축받이
▲ 저부에 축받이가 없는 믹서
▲ 구멍이 있는 소파부력
▲ 시일레스 펌프
▲ 일부를 끊어 없앤 회전식 보관함 등 다수 <계속>

<編輯者 王然中 記>

■ 아이디어뱅크 개설안내 ■

韓國發明特許協會에서는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를 發掘하여 이를 實用化될 수 있도록 關聯企業등에 連繫시키므로서 汎國民的인 發明風土를 造成하고자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 뱅크를 開設하였아오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對　　象** :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
◉ **申請方法** : 直接訪問, 書信 또는 電話
◉ **接 受 處** : 韓國發明特許協會
우편번호 135 서울 江南區 驛三洞 814—5 發明奬勵館(TEL : 568—8263)
◉ **接受된 아이디어의 處理**
○ 分期別로 審査하여 實用化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關聯企業에 實施斡旋
○ 特許·實用新案·意匠으로 設權可能하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出願誘導
○ 申請接受된 優秀한 아이디어는 綜合審査後 年末에 施賞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557—1077~8)로 문의바랍니다.